

2026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

2026. 1. 27

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

목차

1 증권산업 전망

2 증권산업 주요 이슈

1

증권산업 전망

2026년 증권업 전망 요약

- ❖ (위탁매매) 국내외 주식투자 수요 및 시장 기대심리 상승으로 증가 전망
- ❖ (자기매매) 증시 호황은 긍정적이나 금리 변동성 관리 필요
- ❖ (투자은행) 증시 호조, 생산적 금융 정책, 기업 투자 요인으로 성장 전망
- ❖ (상품판매 및 자산관리) ELS/DLS 완만한 증가, 퇴직연금 운용 수요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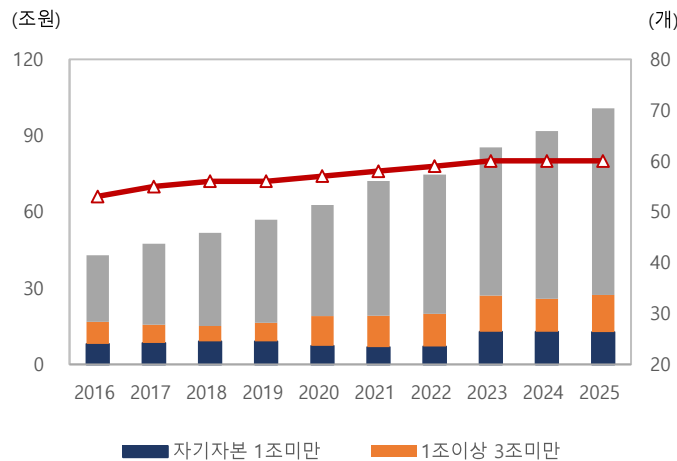
사업부문별 증권업 전망

사업부문	2025년	2026년
위탁매매		
자기매매		
투자은행		
상품판매 및 자산관리		

일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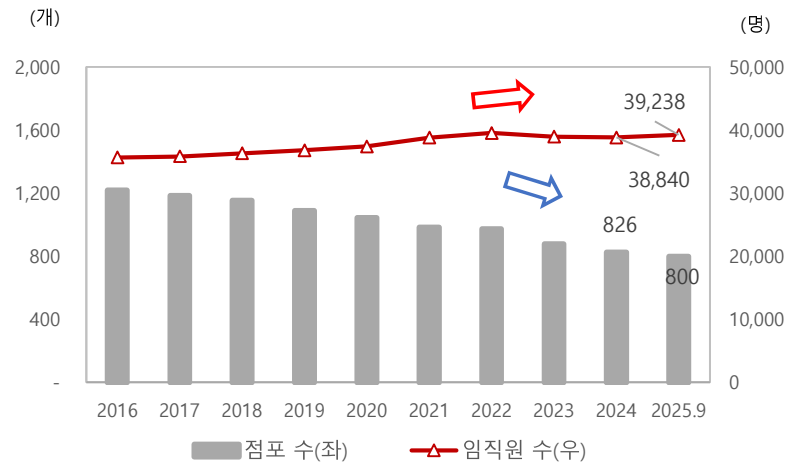
- ❖ 2025년 증권업 자기자본은 증가 추세 지속, 점포 수 감소, 임직원 수 소폭 반등
 - 2025년 자기자본은 9.8조원 증가(자본조달 30.2%), 이 중 대형사가 7.4조원
 -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 4개사에서 7개사로 확대, IMA 2개사 지정
- ❖ 2026년 증권업의 자기자본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
 - 중대형사의 신규 업무 진출을 위한 자본 확충 전망,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

증권사 수 및 규모별 자기자본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자본시장연구원 원내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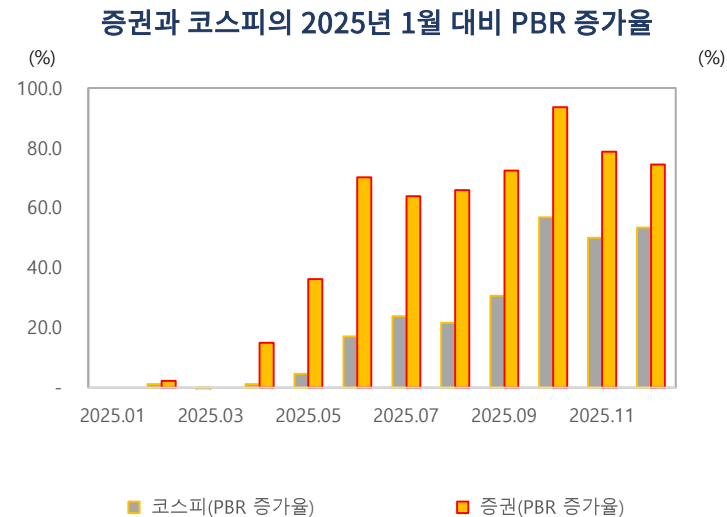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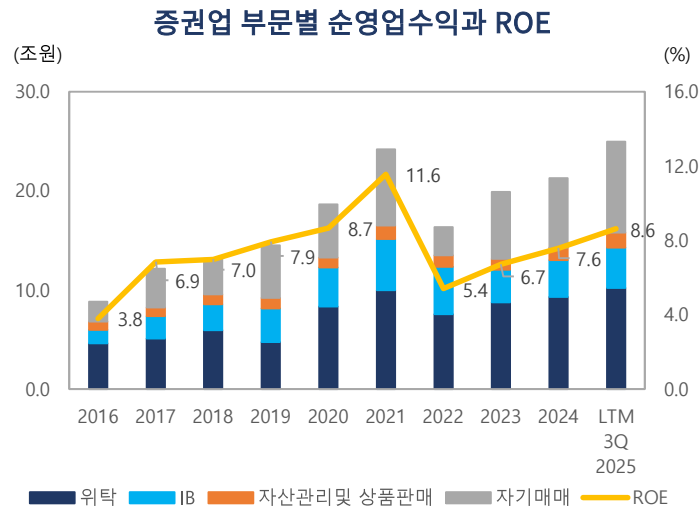
증권사 점포 수 및 임직원 수


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

수익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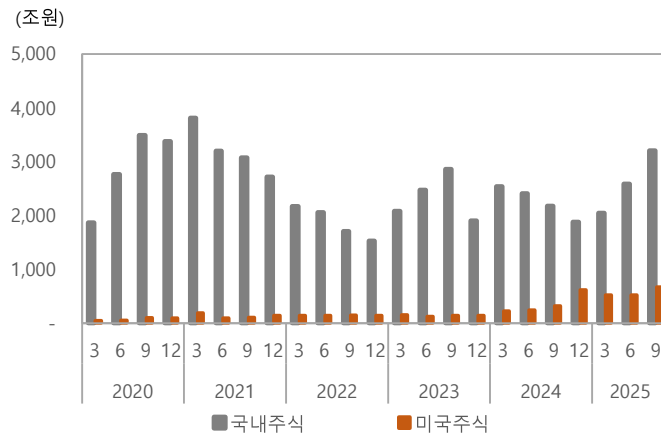
- ❖ 2025년 증권업 ROE는 8.6%, 전년 대비 1.0%p 상승
 - 순영업수익(24.9조원): 자기매매(36%↑), IB/자산관리 등(20%↑), 위탁매매(13%↑) 상승
 - 위탁매매는 3분기부터 급증, 4분기 반영 시 상승 폭 확대 예상
- ❖ 2026년 수익성(ROE)의 성장세 지속 전망
 - 반도체, AI 등의 첨단산업 성장, 생산적 금융 정책, 시장 투자심리 등 긍정적
 - 2025년 중반 이후 증권 부문 PBR 큰 폭 상승: 자본시장 정책 및 긍정적 경제 전망 반영



위탁매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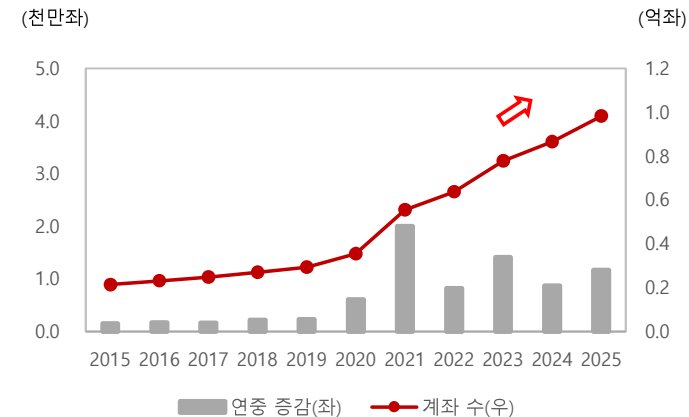
- ❖ 2025년 위탁매매는 하반기 국내 주가 상승과 미국 주식의 견조한 수요로 확대
 - 개인투자자의 꾸준한 증가: 2025년 말 활동계좌 수는 2024년말 대비 11.9% 증가
 - 국내 위탁매매 거래는 '상저하고(上低下高)'였으며, 2분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
- ❖ 2026년 위탁매매 부문은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
 - 국내 주가 상승, 외국인 투자 확대, 리쇼어링 가능성 등이 긍정적

국내주식과 미국주식 분기별 위탁매매 거래실적



자료: 금융감독원

위탁매매 활동계좌 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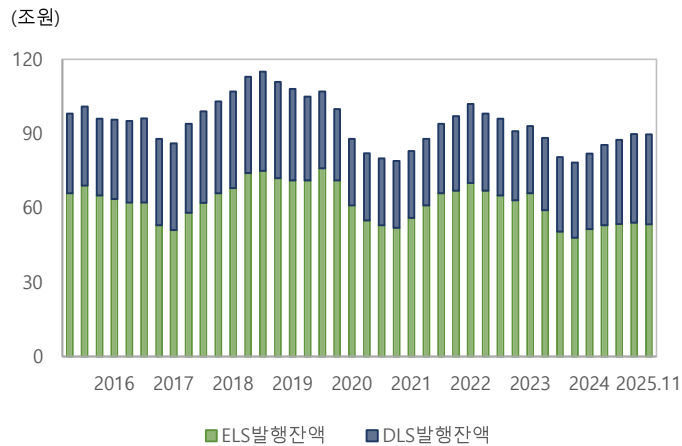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상품판매 및 자산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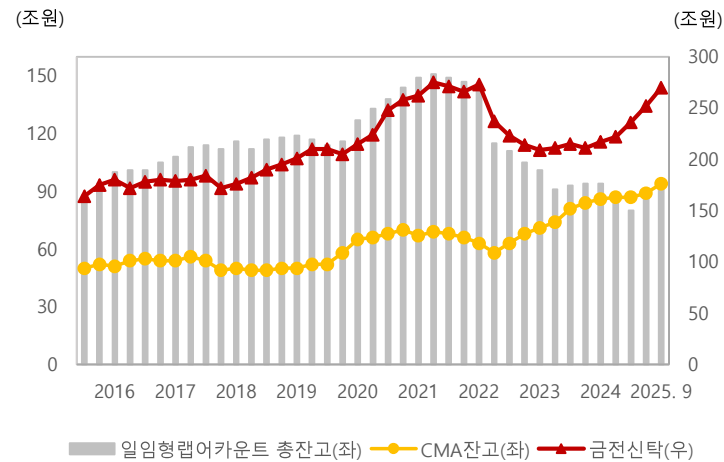
- ❖ 2025년 ELS · DLS 발행잔액 소폭 증가, 자산관리 증가 추세
 - ELS · DLS 판매 규제 강화에도 주가 상승, 보수적 상품 설계, 증권사 리테일 영업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
 - 금전신탁은 퇴직연금 수요로 큰 폭 증가, CMA는 증시 대기자금 증가 영향
- ❖ 2026년 ELS · DLS 완만한 상승, 퇴직연금 중심으로 자산관리 증가 전망
 - 증권사 온라인 직접 판매와 은행 거점점포 판매 증가 시 ELS·DLS의 증가 예상
 - DC/IRP, 실적배당형으로의 전환에 따른 증권사 퇴직연금(금전신탁) 증가 전망

ELS · DLS 발행잔액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자산관리서비스별 AUM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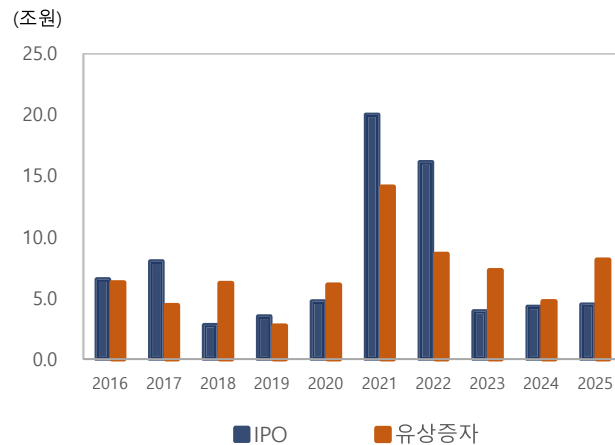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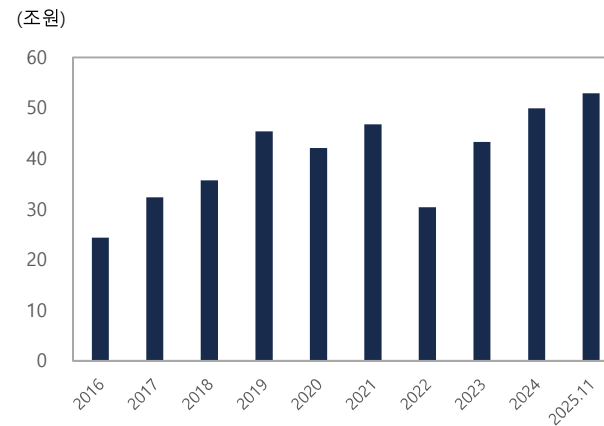
투자은행: 주식 및 채권 발행

- ❖ 2025년 IPO는 전년과 유사, 회사채 발행은 전년 대비 상승
 - IPO: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(7.1) 영향, 유상증자: 몇몇 초대형 건에 전년대비 30% 증가
 - 회사채: 상반기 금리인하로 증가, 연말 금리 변동성으로 감소세
- ❖ 2026년 IPO와 회사채 모두 성장 예상
 - IPO: 투자 심리, 대형주 대기물량, 맞춤형 기술특례, 다산다사 정책 등 긍정 요인
 - 회사채: 대규모 차환 발행 수요 예상, 다만 금리 변동성 등의 이슈 존재

국내 IPO 및 유상증자 시장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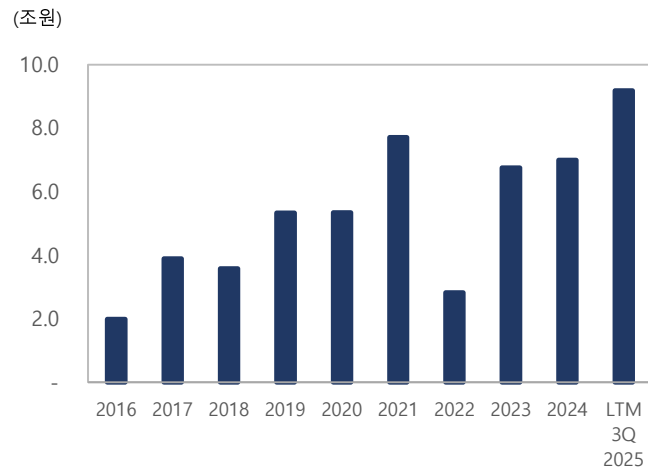
국내 회사채 발행 추이



자기매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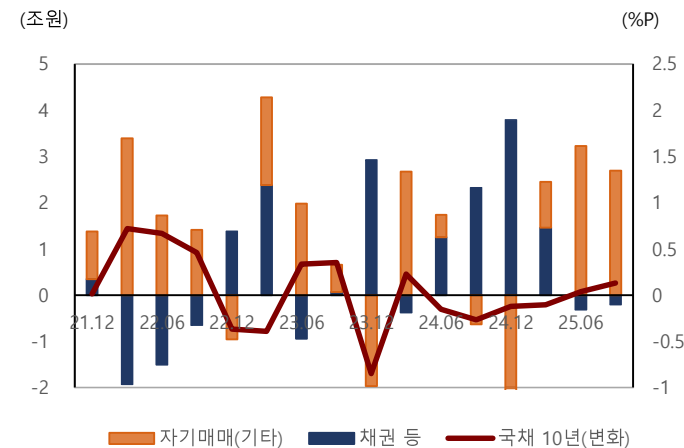
- ❖ 2025년 자기매매 수익 9.1조원 기록, 전년대비 36% 증가
 -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및 펀드 평가이익, 상반기 저금리로 채권 평가이익 개선
 - 2분기 이후 금리 상승으로 채권 관련 이익 급감
- ❖ 2026년 주가 상승이 자기매매 수익을 견인할 전망, 금리 변동성 관리 필요
 - 일본 등 기준금리 인상 기조,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 → 국내 장기금리 상승 압력

자기매매 순영업수익 현황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채권 자기매매손익과 국채 수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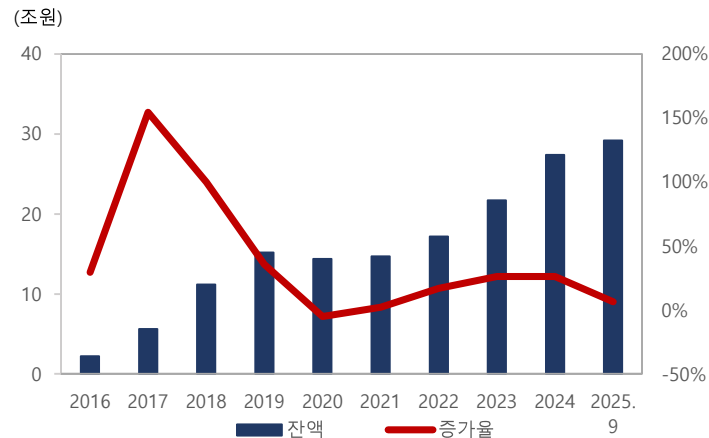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한국은행

종투사 및 초대형 I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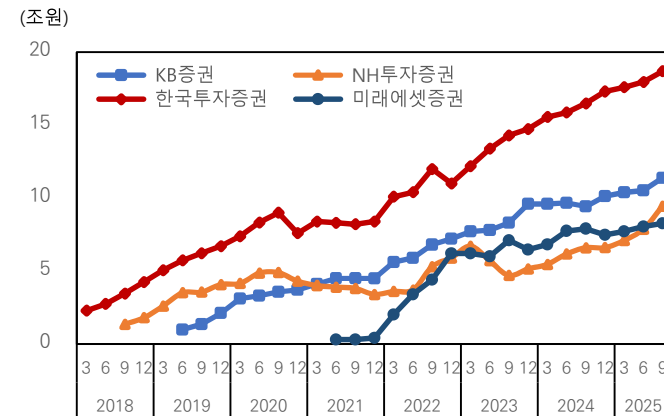
- ❖ 2025년 기업신용공여 증가율 둔화, 발행어음 증가율은 전년과 유사
 - 기업신용공여: 인수금융의 정체,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축소 영향
 - 발행어음: 종투사의 유동성 확보 유인과 채권 부문 투자 수요에 기인
- ❖ 2026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및 발행어음 모두 증가 전망, 모험자본 투자 확대
 - 종투사의 IMA 및 발행어음 인가* 영향과 인가 종투사의 모험자본 관련 투자 계획
 - * IMA 2개사(미래, 한투) 인가, 발행어음 3개사(키움, 신한, 하나) 인가

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



주 : 2025.1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기업신용공여 잔액
자료: 금융감독원

초대형 IB의 발행어음 현황



주 : 발행어음 인가 시기는 한투('17.11), NH('18.5), KB('19.5), 미래('21.5) 순
자료: 금융투자협회

2

증권산업 주요 이슈

생산적 금융 정책 -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

❖ 생산적 금융 정책

- 종투사의 IMA 및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
 - 모험자본 공급의무의 단계적 확대('26년 10% → '27년 20%, → '28년 25%),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
- 모험자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
 - 중소·중견·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대출채권, A등급 이하 채무증권(대기업 계열사 제외), 신·기보 보증 P-CBO,
 -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할인매입 및 담보대출, 벤처투자조합, 신기사조합,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
 -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, BDC 투자도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
- 국민성장펀드(150조원+), 정책금융/모태펀드의 확대

❖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, 기업금융의 구조 변화,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 기대

- IMA(2개사) 및 발행어음(3개사) 인가 → 자금조달 기반의 확대
- 모험자본 공급의무의 단계적 확대 } 모험자본 투자 유인 및 대상 확대
- 모험자본 포괄적 범위, 정책 금융의 확대

생산적 금융 정책 - 모험자본 중개서비스 확대

❖ 생산적 금융 정책

- BDC 제도 도입(입법, 시행)
 - 자산총액의 60% 이상 벤처 혁신기업에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
- 비상장기업 관련 자본시장 인프라 강화
 - 토큰증권(STO)의 제도화,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구축,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
-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: 다산다사 진입퇴출정책 등
-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· 벤처 지원 역량 강화('26下)

❖ 증권사의 모험자본 중개 서비스 확대와 신성장섹터 부문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강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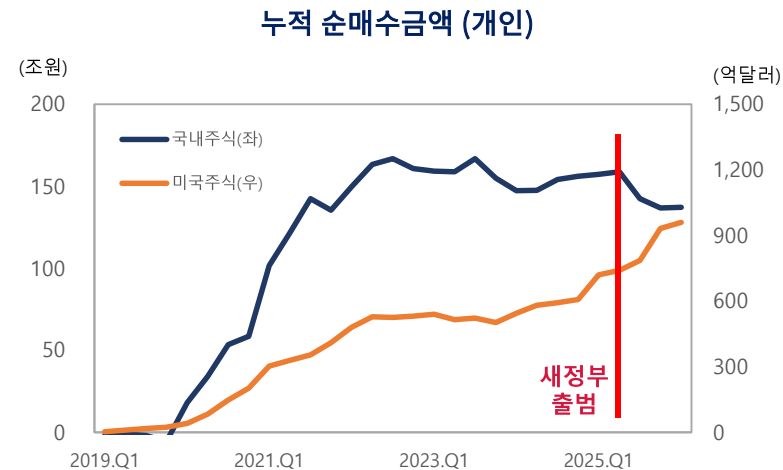
- BDC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 중개, 투자자 모집 및 유통 등의 증권사 역할 기대
- BDC/비상장기업 인프라 개선에 따른 VC 세컨더리 시장에서의 중개기능 확대
-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IPO 기업 발굴 강화

위탁매매 자금유입 확대 국면에서의 대응 과제

- ❖ 위탁매매 자금유입: 투자자 예탁금이 빠르게 상승, 국내외주식 누적 순매수금액도 상승 추세
 - 투자자 예탁금: 2025년 초부터 빠른 상승 추세, 2026년 1월 15일 기준 92.6조원 기록
 - 누적 순매수금액: 국내주식은 새정부 출범 이후 증가가 아닌 소폭 감소, 미국주식은 증가 추세 유지
 - 국내주식은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소폭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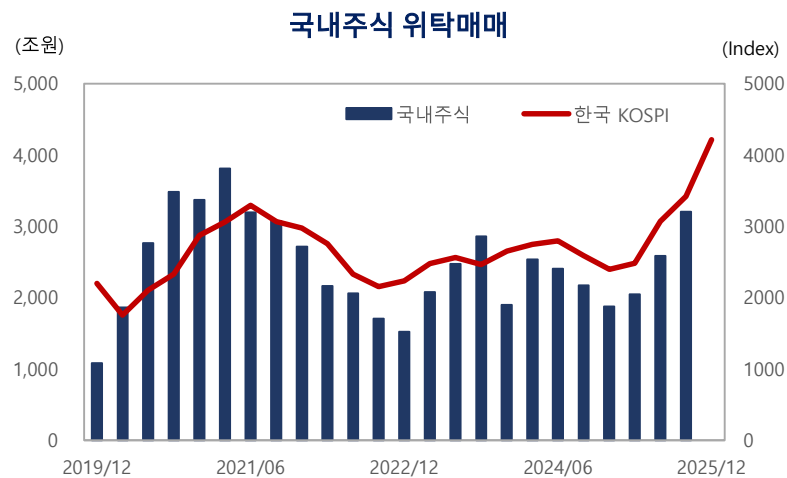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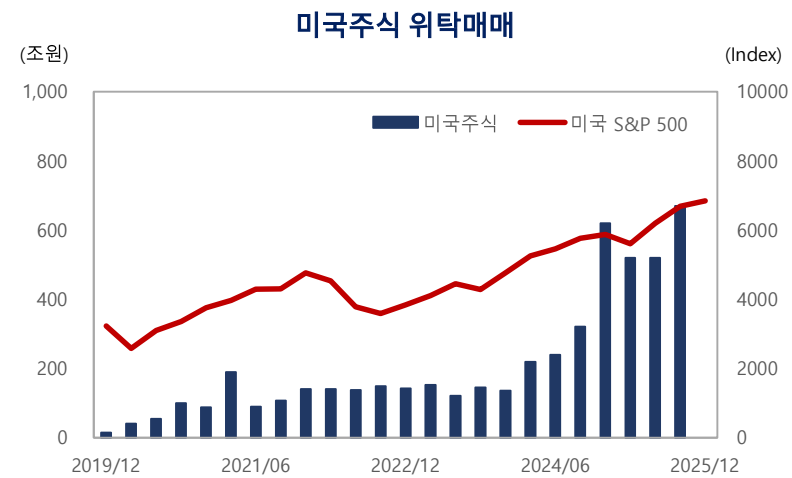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

위탁매매 자금유입 확대 국면에서의 대응 과제(계속)

❖ 국내와 미국 주가의 상승 추세가 예상 → 위탁매매 실적 상승 전망



자료: 한국거래소, 금융감독원



자료: 블룸버그,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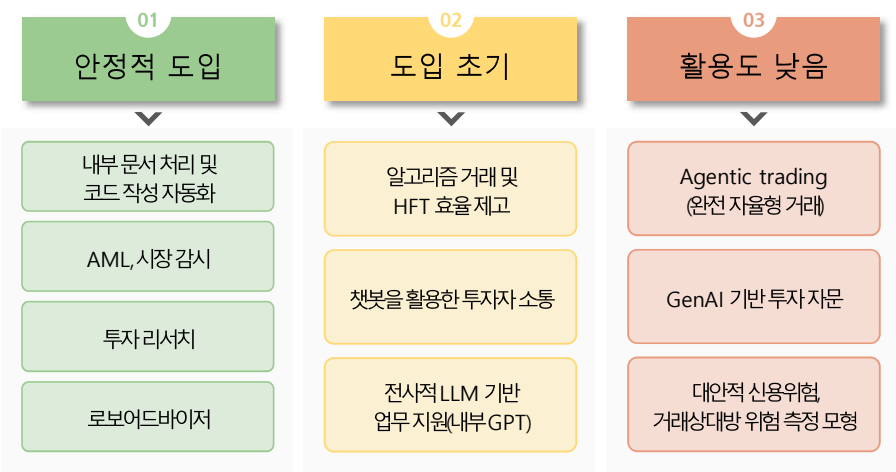
❖ 증권사는 이벤트 경쟁보다 국내외 위탁매매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

— 모바일 거래플랫폼(MTS) 편의성 제고, 국내주식 복귀계좌(RIA) 활용 극대화, AI를 활용한 주식투자 정보제공 강화 등

증권업의 AI 활용: 기대에서 현실로

- ❖ 해외 증권업의 AI 도입 전략 방향
 - 해외 증권사는 기술 성숙도와 ROI가 높은 영역부터 AI 단계적 도입 (리서치 보조, 내부 업무 자동화, 컴플라이언스 등)
 - 제한적 · 보조적 AI에서 점차 전사적 · 능동적 AI로 확대
- ❖ AI 기본법 및 시행령, 금융 AI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국내 규제 환경 변화를 제약이 아닌 기회로 활용
 - 해외 증권업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입된 분야에 우선적으로 성능 평가 및 활용
 - 상용화 전환 가속화에,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

해외 금융투자업 AI 도입 단계별 분류



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 내용



증권업의 개인정보 보호: 준법을 넘어 핵심 경영 과제로

- ❖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 체계 점검 중요성 부각
 - 최근 여러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업권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보여줌
 - 디지털 서비스로의 개편과 AI 도입으로 증권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연계 증가에 따른 정보관리 중요성 증대
- ❖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당국·업계의 대응이 확대 중이나, 기관별 대응 수준은 편차 존재
 - 2026년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 강화 예정
 - 증권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 8개사, ISMS-P 14개사) 인증을 자율적으로 획득
- ❖ 증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준법사항을 넘어 핵심 경영 요소로 인식할 필요
 - 증권업의 디지털·실시간 거래 구조상, 정보유출 사고는 단기 영업 차질과 장기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
 - 정보보호 역량을 디지털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좌우하는 경쟁력 요소로 인식하고 강화할 필요

부동산 PF시장 규제 강화와 영향

❖ 부동산 PF시장 규제에 따른 증권사 부동산PF 시장의 위축 전망

1) NCR 위험가중치 체계 개편

- 사업단계·LTV 등 실질 위험 기준으로 차등 적용



우량 프로젝트 선별 심화

2) 증권사 부동산투자금액 한도 규제

- 부동산 관련 총 익스포저¹⁾를 자기자본 대비 상한

1) 부동산관련 국내외 대출·채무보증·지분투자·펀드 등 전체



부동산PF 외형 확장 제한

3) 증권업권 PF충당금 적립률 상향

- PF 보유에 따른 캐리 코스트 증가



마진 및 수익성 하락

2026년 증권업 과제: 속도보다는 방향

❖ 2026년 증권업의 성장 기대

- 위탁매매 부문과 모험자본 관련 IB의 성장, AI 기반의 서비스 확장이 기대

❖ 증권업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와 방향

- 모험자본 투자 및 중개 등 IB 부문의 경쟁력 강화
 - 국내 모험자본 생태계(VC/PE, Pre-IPO, 벤처대출, 하이일드채권 등)와 네트워크 강화
 - 기업금융의 자문 및 중개와 자기자본 활용의 연계 확대(머천트 बैं킹 모형)
 - 기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 제공 노력
 - 모험자본 펀드 LP지분 세컨더리 중개, GP 주도 세컨더리 자문 및 구조화
- 기술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
 - 적극적 AI 도입을 위한 연구 역량 확충 및 AI 거버넌스 체계 확립
 - 증권사 대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체계 업그레이드 필요
 -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도화



Thank you

본 자료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또한 사전동의 없는 자료 복제 및 배포, 개작 행위를 금지합니다.